



전주매일



전북 KB금융타운 개소식

2026.07.08 (수)

8일 KB금융타운 개소식이 전북 혁신도시에서 열린 가운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등 참석자들이 개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 체감 전북 금융특화도시 '탄력'

KB금융그룹, 전주 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 개소

시니어·금융취약계층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갖춰

금융기관 집적 본격화, 제3금융중심지 조성 등 기대

전북 지역 내 금융 집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B금융그룹의 KB금융타운이 8일 전주 혁신도시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된 KB금융타운에는 은행과 증권이 함께 입주한 복합 점포를 비롯해 시니어 고객 상담을 위한 골든라이프센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금융센터 등 고객 상담 공간이 마련됐다. 퇴직연금 자산관리센터, 비대면 가계연심상담센터, 글로벌 홈세일 영업조직, 전주CB센터 등 자산 관리와 해외 거래 관련 업무도 들어섰다.

아울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전북HUB와 자본시장 영업조직,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비대면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와 CNS도 입주해 민간 주도 혁신도시 내 금융 거점이 조성됐다.

전북 혁신도시로의 금융권 이전은 KB금융에 그치지 않는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월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우리금융그룹은 5년간 1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29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하

나금융그룹 역시 자본시장 관련 기능을 모은 원-루프(One-Roof) 센터를 신설해 5대 계열사 15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전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도민과 함께 체감 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도정 방향으로 제시하며,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4대 금융그룹의 잇따른 전북 이전은 이 같은 도정 방향이 민간 투자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북이 도민이 체감하

는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우수 인재들이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저지 연금사업, 벤처펀드 재원 조성, 지니포럼 개최 등 지역 상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들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민간 대형 금융사인 KB금융그룹이 전북에 거점을 구축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이뤄낸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특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연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초고속 국제 해저광케이블 새만금산단 '육양국' 건립

군산시, 전북자치도·새만금청·드림라인과 투자협약 체결

340여억원 투입...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핵심 기반시설

싱가폴·일본 연결 'AUG East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단지 내 국제 해저광케이블과 국내 통신망을 연결하는 '육양국(Cable Landing Station)' 건립을 위해 드림라인(주)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협약에 따라 드림라인(주)은 새만금 국가산단단지에 약 340억원을 투자해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을 구축할 계획이다. 육양국은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새만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AIDC)' 조성의 핵심 기반시설로, 향후 첨단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ICT 기업 유치가 기대된다.

육양국은 해저에 설치된 국제 광케이블과 국내 통신망을 연결하는 핵심 통신시설로, 국제 데이터 통신의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싱가포르와 일본을 연결하는 'AUG East(Asia United Gateway East)'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AUG East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총연장 8,730km 규모의 국제 해저광케이블망으로, 현재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저광케이블 육양국은 부산과 거제 등 남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육양국이 구축되면 서해안에도 국제 통신망 거점이 마련돼 국가 통신망의 안정성과 이

중화가 강화되고,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이 단순 제조 산단을 넘어 세계를 향한 글로벌 디지털 통신 관문으로 도약하게 됐다"라면서, "현대차그룹 등 첨단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윤재 드림라인(주) 대표이사는 "AUG East 해저광케이블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초고속·저지연 인프라를 제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육양국은 지난 2월 현대차에서 약속한 대규모 AIDC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의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번 육양국 투자협약은 새만금 AI 밸리 조성과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데이터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미래 첨단 ICT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기자

국내 첫 농림위성 발사 성공

SI 기반 농업위생정보 본격 생산... 농정 활용 기대

국내 최초의 농업·산림 관측용 국가위성인 농림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상시 관측하는 '농림위성 시대'가 본격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주항공청 신임청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림위성 발사로 전국 농경지 이용 변화와 농작물 재배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외 위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농업에 특화된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농림위성은 국내 최초의 농업·산림 분야 관측 전용 국가위성으로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3일 주기로 촬영해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측한다.

관측 영상은 농촌진흥청이 축적해온 인공지능(AI) 분석기술을 활용해 기상·공간·현장 정보와 융합 처리한 뒤 농작물 재배면적과 생육 정보, 수량 예측, 농경지 변화, 농업재해, 농업환경 등 모두 51종의 농업위성 정보로 생산된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농림위성.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생산된 위성정보는 주요 농작물의 작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농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경지 분석을 통한 공익직불제 운영과 농업재해 위험관리 등 다양한 농업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될 예정

이다. 침수와 도복, 병해충 발생은 물론 토양수분과 가뭄 등 농업환경 변화도 보다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위성 활용 기반 마련에도 꾸준히 투자해 왔다. 지난 2012년 농업위성 개발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한 이후 기획연구와 예비 타당성조사, 국가우주위원회 기본계획 승인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또 주요 작물 생육 분석과 재배면적 추정 등 원격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농업위성 운영과 정보 활용을 전담하는 농업위성센터를 신설했다. 앞으로 농업위성센터는 위성 운영과 함께 다양한 농업위성정보를 생산·서비스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 10개 시군 호우주의보 해제

아침부터 많은 비로 곳곳 피해

아침부터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강우 피해가 발생했다. 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북 10개 시군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일괄 해제했다. 앞서 낮 12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 지역은 고창,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익산, 정읍, 부안, 군산(어청도 제외) 등이다.

이날 오후 3시 50분을 기준으로 전북 지역 주요 지점 일 강수량은 정읍 내장산 55.5mm, 군산신호 51.5mm, 순창 북흥 51.0mm, 고창 삼원 48.0mm, 진안 41.5mm, 고창 40.9mm, 완주 구이 36.0mm 등이다. /뉴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2건의 풍수해 관련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대다수 신고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6시 13분경 군산시 경창동에서는 간판이 떨어지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바 있다. 오전 7시26분경에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동을 지나는 언더패스의 안내판의 한쪽 면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오후 2시37분경 진안군 진안읍에는 지하차도에 물이 찬다는 내용의 신고도 접수됐다.

경찰도 오후 3시까지 신고등 고장 10건, 도로침수 3건, 기타 안전조치 사항 14건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를 진행했다. /뉴스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

순창 강천힐링스파

순창군